

하나님과 성령님의 뜻대로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라

본 문 디모데후서 2장 21~26절, 로마서 8장 28~30절

1. 하나님은 <천지 만물>을 창조하시고, 그곳에 살아야 될 <인간>을 창조하셨다. 그리고 하나님은 <인간>을 사랑하사,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믿고 사랑하게도 하시고, 그들에게 ‘복음’을 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도 하셨다.
2. 하나님은 <뜻이 있는 자>를 택하여 ‘말씀’을 주시고, ‘성령’으로 감동시켜서 그가 자기를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게 하셨다. 로마서 8장 28~30절 말씀대로 <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뜻대로 부른 자들>을 의롭게 하셨다.
3. 하나님은 <하나님을 아는 자들>로 하여금 ‘하나님이 보낸 자, 예수님’을 본받아 신앙이 뛰어나게 하시고, ‘신앙의 맏아들’이 되게 하셨다.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, 영화롭게 하셨다.
4. 하나님은 성령과 같이 <하나님을 믿고, 그가 보낸 자를 믿는 자들>을 ‘좋은 사람’으로 만드셨다. 또 <메시아>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더 의롭게 만드셨다.

5.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<중심인물들>을 만들어서 쓰셨다. 먼저 그들이 ‘하나님’을 믿게 만들고, ‘하나님의 말씀’을 실천하게 만들고, ‘진리의 사람’, ‘하나님의 사람’이 되게 만드셨다. 그리고 나서야 합당한 대로 쓰셨다.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그리하셨다.
6. <성경에 나온 인물들>을 구체적으로 보면, <모세>도 자신을 오랫동안 만들었다. 그 후에 하나님은 <모세>를 ‘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’로 귀하게 쓰셨다.
7. <아브라함>도 하나님이 부르시어 갈대아 우르에서 ‘가나안 땅’으로 가게 하시고,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하며 의롭게 만들었다. 그로 인해 ‘믿음의 조상’으로 쓰였다.
8. <요셉>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자신을 ‘신령한 자’로 만들었다. 결국 ‘애굽의 총리’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, 그 형제들에게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.
9. <다윗>과 <솔로몬>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여 의롭게 하시고,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며 ‘하나님의 사람’을 만드셨다. 그 후에 그들은 ‘이스라엘 민족의 왕’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다.
10. 신약시대 때는 <예수님>을 택하시어 의롭게 성장하게 하시고, 그에 따라 만들고 가르쳐서 ‘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’로

만민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.

11. 하나님과 성령님은 <자신을 믿는 자들 중>에 ‘뜻이 있는 자’를 택하시어 그를 더 의롭게 만드신다. 그가 <시대 말씀>을 듣고 ‘하나님의 마음’에 들게 의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,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일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.
12. 세상 만사를 봐도, 만들지 않으면 아예 ‘존재’ 할 수 없다. 무엇이든지 개발할수록 ‘더 좋게’ 되고, ‘더 편하게’ 쓰고 살게 된다. 사람도 그러하다. 그러므로 <물건>도 만들고, <환경>도 만들고, <사람>도 의롭게 만들어야 된다.
13. <100%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>은 제대로 쓸 수 없다. <월명동>도 만들지 않았으면 귀하게 쓸 수 없었고, 사람들도 많이 몰려올 수 없었다. 이와 같이 <사람>도 자기를 ‘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’ 만들어야 된다.
14. 100% 온전하게 만들지 않고 쓰면, <쓰는 자>도 제대로 못 쓰고 불편하다.
15. <선생>도 처음부터 사명대로 쓰이지 않고, 먼저는 자신을 만드는 데 쓰였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, 집중적으로 자신을 닦고 깎는 데 쓰였다.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.

특히 <디모데후서 2장 21~26절>을 읽으면서 “자기를 만들고

예비하라. 특히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.” 는 말씀대로 세상 사랑을 피하고 이기며 산속에서 홀로 의롭게 만들었다.

또 <화평>하게 만들고, ‘혈기’와 ‘분노’와 ‘무지’ 등을 깨닫고 <온유>하게 만들었다.

그리고 <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>로 만들었다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절대 믿게 만들고, <절대 진리>를 깨닫고 ‘절대 실천’ 하게 만들었다.

<육신>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해도 싸워 이기게 만들었다. 또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끝까지 해야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하여 얻게 되고 아예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<끝까지 하는 정신>을 만들었다.

16. <만들기 어려운 것>은 ‘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담대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’ 이었다.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안 하고, 성령의 생각으로 하기 위해 기도하여 ‘더 근본이 되는 말씀들’ 을 받아 계속해서 나를 만들었다.

예수님은 수시로 ‘꿈’ 이나 ‘기도 중’ 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, 스스로 절실하게 깨닫고 행하게도 하셨다.

17. <자기 만들기>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알아야 된다.

18. <자기를 만든 자>가 ‘자기를 못 만든 자 쪽’ 을 보면, 답답하

여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.

19. <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육도 영도 그 뜻대로 만들지 않은 자>는 ‘구원’을 받을 수 없고, ‘천국’에 갈 수 없다.

20. 좋게 되려고만 하지 말고, <자기>를 만들어라.

21. <자기>를 만들수록 더 가치 있게 되고, 하나님도 귀하게 쓰신다.

22. <자기>를 흠 없이 만들고 행해야, 하나님도 성령님도 ‘자기’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.

23. <자기>를 만드는데로 ‘황금 천국’에 간다.

24. <하나님의 주관권>은 ‘귀한 곳’이니, 그 주관권에서 살려면 ‘귀한 자’가 되어야 된다. <황금 천국> 역시 ‘귀한 곳’이다. 고로 <자기>를 그에 맞게 귀하게 만들어야 간다.

25. <하나님의 구상에 맞게 성령의 뜻대로 만들기>다. <자기 식>으로 만들면, ‘자기 주관권’에 갇혀서 산다.

26. <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>에 따라 ‘값’이 달라진다. <집>도, <건물>도 ‘어떤 자료’로 ‘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느냐’에 따라 ‘값’이 좌우된다.

27. <월명동 자연성전>을 ‘하나님의 구상’ 대로 만들듯, <자기>를 ‘하나님의 구상’ 대로 만들어라.

28. 누구든지 만들면, 만들어진다.

29. <자기>를 만들어야 ‘더 차원 높은 구원과 휴거’가 이루어진다.

30. 만들기 힘들어도, 만들어야 된다. <기도로 만들 것>은 ‘기도’ 하여 신령하게 만들고, <말씀으로 만들 것>은 ‘말씀’을 듣고 만들고, 또 <복음>을 전하며 만들고, 닦고, 깎고, 꿰고, 뛰고 달리고 행하며 만들 때 아예 만들어야 된다.

31. <집>을 만들어 놓으면 ‘100년’ 씩 쓰고, <자기 육과 영>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간다.

32. <성령>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.

33. (성령) <나 성령>도 <주>도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해야 ‘그 마음과 생각’이 자기에게 와 닿아 그와 같이 따라 행하게 되어 만들어진다.

34. (성령) <나 성령>도 <주>도 좋아하고 사랑하면, ‘그 정신과 마음’이 느껴온다. 고로 그를 따라 하게 되어 쉽게 만들어진다.

35. (성령) <나 성령>과 <주>를 좋아하고 사랑하면, ‘그 심정’ 이 온다. ‘그 심정’ 으로 행하면 만들어진다.
36. (성령) <내 심정>이 임하면, 쉽다.
37. (성령) <나 성령과 일체> 되면, 감동을 받고 ‘자기 몫’ 을 자 동으로 행하게 된다.
38. (성령)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좋아하고 사랑함>으로 ‘그 마음과 정신’ 을 받아야 ‘삼위와 주가 원하는 사랑의 대 상’ 으로 만들어진다.
39. (성령) <생각>해야, ‘그 마음과 생각’ 이 자기와 일체 되어 ‘그 마음과 생각’ 대로 움직여지며 만들어진다.